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98호 【루계 제25241호】 주체105(2016)년 4월 7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공격전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자

우리의 최고존엄인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참된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조국을 끝까지 지켜싸우려는 천만군민의 강용한 기상이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활화산마냥 세차게 폭발되고있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고 승리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 백두산대국을 온 누리에 빛내일 불타는 애국충정을 안고 려명거리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새로운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세계를 향해 파감히 돌진하는 영웅조선의 모습을 만천하에 과시할 억척같은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력사는 군민일치,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이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가질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없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세기를 이어 백전백승을 떨쳐나가는 것은 선군조선의 크나큰 자랑이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과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민대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군민대단결은 백두산대국의 억센 힘이고 불패성의 상징이다. 일찌기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군민일치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이룩된 군민대단결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귀중한 혁명유산이다.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련전련승을 떨치신것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단결로 시작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의 원천은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 군민대단결에 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군대와 인민이 서로 위해주고 붙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며 피와 살도 나누는 숭고한 동지애와 도덕의리의 미풍이 차넘치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군원민의 미담들이 수없이 꽃펴나고 부흥강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과 생활속에서 사회주의대화원이 더욱 만발하고있는 현실은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있는 군민대단결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선군조선의 귀중한 재보이며 군대와 인민이 친혈육이 되여 한전호에서 어깨겯고 생사를 같이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백승만을 떨치는 무적의 강국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고 난관도 있지만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 비약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전군, 전민이 당중앙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혁명은 단결이고 단결은 승리이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만 있으면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두려울것이 없고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원수님을 혁명적의리와 깨끗한 량심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며 당중앙을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전결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전당,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당과 혁명대오를 일심단결의 대오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천만군민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의 총공격전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군민협동작전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위력한 투쟁방식이다.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도 강행돌파하고 전체 인민이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여기에 군민협동작전의 거대한 생활력이 있다.

인민군대지휘관들과 사회의 일군들은 군민협동작전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70일전투에서 그 위력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으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 비약의 총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야 한다. 군민이 단합된 힘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며 생산과 건설, 현대화실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조국의 북변 라선땅에 전화위복의 기적을 안아온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올해에 려명거리건설에서 세계가 알지 못하는 만리마속도, 주체조선의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려명거리를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거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공산주의리상거리,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만점짜리 거리로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당에 기어이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려야 한다.

인민군대가 총공격전의 기수가 되여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는것은 군민대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지금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다. 인민군대의 일당백공격속도이자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이다. 군대가 앞장에 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여 투쟁해나갈 때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커지게 된다.

인민군대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주동이 되고 기둥이 되여야 한다. 당의 사상과 령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사상정신과 문화, 일본새와 생활기풍 등 모든 면에서 사회를 선도할수 있는 본보기들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드세차게, 맹렬하게 벌려 당이 준 과업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며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뉴대를 강화하고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휘하는데서 기수가 되고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군민대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박력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되는 인민군군인들의 숭고한 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들이대여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이 창조, 창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 전위투사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돌격전을 파감히 벌려 오늘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이 명예전국지도자로 높이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이 명예전국지도자로 높이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명예전국지도자칭호증서를 전달하는 의식이 3월 31일 아부쟈에서 진행되였다.

의식에는 전국위원장을 비롯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지도부성원들, 나이제리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의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명예전국지도자칭호증서를 다미안 오그본나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이 정영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증서에는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은 특출한 정치지도력과 훌륭한 자질을 지니고계시는 김정은각하께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명예전국지도자칭호를 드린다고 씌여져있다.

전국위원장은 의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명예전국지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의 전체 당원들의 응당한 본분이며 최대의 영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하시여 조선로동당을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계시며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이 뜻깊은 계기에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건강하시여 세계반제자주위업을 계속 현명하게 이끄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의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백두산천출위인들께 나이제리아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백두산천출위인들께 드리는 선물들을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가 3월 31일 나이제리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에 축전을 보내였다

디마스끄

아랍사회부흥당 민족지도부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아랍사회부흥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귀 당 민족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바사르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귀 당과 귀국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당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5(2016)년 4월 6일 평 양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는 총진격의 기상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장에서 10여만㎡에 달하는 내외부미장 결속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장에 새로운 대비약창조의 숨결이 세차게 약동하고있다.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이 70일전투에 진입하여 그전에 비해 3.5배이상의 공사량을 해제끼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3월현재 2중천정공사, 지붕보수공사, 금배수판놓이기 등 수십개의 공정계획들이 수행되였고 10여만㎡에 달하는 경기장내외부벽체와 판람석상단, 하단에 대한 미장이 전부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를 최대의 속도로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할수 있도록 현장지휘부와 시공력량편성, 형성안작성뿐만 아니라 설비,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건축물로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게 될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를 자기들이 맡아 수행한다는 긍지를 가슴가득히 간직한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은 날에날마다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였다.

70일전투가 시작된지 얼흘남짓한 기간에만도 하루 미장실적이 최고 6천여㎡, 콩크리트치기는 3천여㎥로서 새 기록을 돌파하였고 수만㎡에 달하는 판람석의 경콩크리트치기, 바닥방수미장, 인조석바닥미장을 완성하였다.

경기장정면건물공사를 맡은 여러 부대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본받아 대외건설지도국아래 옥류, 영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와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아래 1, 2려단의 돌격대원들이 철야전투의 불길속에 날마다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옥류, 영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맡은 공사량에 비해 로력이 적은 조건에서도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실적이 높은 단위로 자랑떨치였다. 이들은 자재가 부족할 때면 자체로 확보한 모래, 수천정의 기공구를 효과있게 리용하면서 70일전투의 첫 얼흘동안에 수천㎡에 달하는 판람석의 인조석바닥미장을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아래 여러 단위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도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발걸음에 힘찬 보폭을 맞추며 청춘의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한주일이 걸려야 한다던 근 1만㎡의 기본건물외벽미장공사를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단 35시간동안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기장개건보수공사장에서는 또한 공사기일을 앞당기고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는 합리적인 새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놀라운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판람석상단보수공사에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여 많은 건설자재가 절약되였으며 공사기일은 10여일이나 단축되였다.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아래 여러 단위 전투원들은 건설의 대번영기를 쉼없이 이어나갈 의지로 심장을 끓이며 지붕채양장식부분물제작과 경기장주변의 갖돌 및 연석조립전투에서 많은 창의고안과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였다.

수도건설위원회와 철도성아래 여러 단위 건설자, 돌격대원들도 시공의 공업화, 첨문화수준을 높이면서 외부차고를 비롯한 기본골조공사를 85%수준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지난 2월부터 공사장으로 달려나온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초급청년동맹위원회 청년동맹원들과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외교단사업총국, 출판지도국을 비롯한 연 3만 5천명에 달하는 각급 근로단체조직의 동맹원들이 600여㎡의 보래운반과 320여㎥의 흔석, 1 400여㎥의 비력처리를 해제껴 승리의 5월을 충정의 일념으로 맞이해가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뜻깊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들과 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의 비상히 앙양된 열의속에 공사실적은 나날이 뛰여오르고있다.

윤 금 찬

70일전투목표 기한전에 돌파 안주절연물공장에서

안주절연물공장에서 70일전투목표를 기한전에 돌파하여 상반년도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였다.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에 접수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스스로가 전투목표를 높이 정하였다. 그 점령을 위한 일별, 주별전투계획들도 현실성있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면밀하게 세웠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자재보장을 예견성있게 앞세우고 설비들의 정비보수와 공정별맞물림을 짜고들어 련일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신적성과들을 널리 소개평가하고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을 들이대여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절연선생산자들은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고 교대가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같은 조건에서 보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절연와니스생산공정의 로동자들은 공정간 협동을 강화하여 원단위소비기준을 최대한 낮추고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그 어느때보다 짜고들어 단위시간당 생산성과 제품의 질을 부쩍 높이였다.

세차게 휘몰아친 사회주의증산경쟁의 열풍속에 날에날마다 혁신적성과가 이룩되였다. 공장에서는 작업반별, 기대별증산경쟁만이 아니라 자재절약, 기술혁신안도입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경쟁을 심화시켜 대중의 열의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이 과정에 많은 종업원들이 남먼저 출근길에 오르고 또 교대가 끝나면 다음교대를 도와주는 기풍이 발휘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절연물이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되였다. 현행생산은 물론 새 제품개발과 생산공정현대화에서도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당 제7차대회를 승리적으로 맞이할 불같은 열의를 지닌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전 성 삼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이며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단천제련소에서— 현지보도반

당대회의 나날들을 더듬어

자주성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설계도를 펼친 당 제3차대회

총정의 70일전투의 열기속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를 눈앞에 둔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전환, 일대 비약의 분수령들로 우리 당력사에 아로새겨진 당대회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전례없는 대전성기를 펼쳐 어머니당 제7차대회를 빛나게 장식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성스러운 우리 당력사에는 혁명적당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굳건히 고수하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웅대한 전투목표제시로 창조와 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펼쳐놓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가 큰 몫을 하여 서있다.

우리 당의 자주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뚜렷이 밝히시여

혁명적당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견결히 고수하는것은 당의 존망과 전투력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건설과 활동에서 혁명적원칙성과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1950년대 중엽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세계사회주의운동을 말아먹고있던 시기에 더욱 뚜렷이 발휘되였다.

당시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데서 표흔을 찾을 대신 정전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진》을 고아대며 또다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위협에 매여달렸다.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책동에 더욱 광기를 올리였고 세계사회주의운동안에서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미제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미제국주의와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길로 나갔다.

당시 사회주의나라 당들은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벌리는 《개인미신》소동에 말려들어 당의 령도적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대국주의적전횡으로 하여 일부 사회주의나라 당지도부가 흔들리였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사이에 호상관계의 규범을 위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당도 저들의 수정주의로선을 받아들이도록 공공연히 압력을 가하여왔으며 혁명의 원쑤들도 양봉음위하면서 뒤에서 쏠라닥거리고있었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 시련의 먹장구름이 밀려오던 그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이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웅대한 투쟁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심하시였다.

몸소 당대회준비사업을 하나하나 조직지도해주시던 력사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성을 비롯한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 개천과 순안 등 농촌들을 찾으시여 로동자, 농민들을 혁신에로 고무해주시였다.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는 주체45(1956)년 2월 5일 개천군당대표회와 4월 7일에 진행된 평안북도당대표회에서 당조직들이 일상적으로 당원들의 당생활을 장악지도하여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행정경제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당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강령적인 카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온 나라가 비상한 정치적열의와 생산적앙양으로 들끓는 가운데 주체45(1956)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당 제2차대회이후 8년에 걸치는 기간 준엄하고 어려운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증하신 다음 우리 당과 인민이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국제정세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당이 견지해야 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을 우리 당 대외정책의 첫자리에 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화애호국가들과의 관계문제에 있어서 자주권의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시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혁명적의리로, 국제적의무로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 제3차대회에는 세계 여러 나라 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그때 대회장에서 소위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의 대표단단장은 축하연설을 하다가 당이 혁명을 령도하는데서 《개인미신》을 극복하는 문제가 중요하므로 조선당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의 발언을 듣고있던 한 항일투사가 불끈 종주먹을 부르쥐고 연단에 나섰다. 력사의 진실과 진리가 담긴 불같은 토론이 진행되였다.

《우리 당활동을 돌이켜볼 때 가장 긍지높이 말할수 있는것의 하나가 바로 우리 당은 시종일관 수령님의 령도를 보장하여왔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한없이 흠모하며 높이 존경하는것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감정이다. …》

론리정연한 그의 토론이 끝나자 대회장에는 폭풍같은 박수가 터져올랐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는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고 당의 대내외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유일하게 옳은 과학적해명을 준 고전적문헌으로서 세계혁명운동안에서 나타나고있는 대국주의,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제자주위업, 세계사회주의위업을 강력히 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는 어리석은자들이 우리 당의 대내외정책관철을 방해하며 당의 조직사상체계를 감히 흔들어보려고 책동하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갈 드팀없는 립장과 철석같은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한 자랑한 대회였으며 주로의 동요도 없이 자주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을 고수한 빛나는 대회였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웅대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시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회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영웅조선의 본때를 보여준 우리 인민은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단 3년만에 복구건설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주체45(1956)년 1월에는 벌써 계획에 예견된 그해말 공업생산수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도 급속히 다그쳐지고있었다.

3년간의 전후인민경제복구사업을 기본적으로 끝낸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이 일정하게 극복되였지만 그것은 아직 적지 않은 부문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과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건설하자면 공업화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하였다.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5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완성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회의 보고에서 총결기간 국내생활에서 일어난 거창한 력사적사변들을 총화하시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짧은 시일안에 끝내기 위한 웅대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완성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5개년(1957년—1961년)인민경제계획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투쟁목표를 제시하시였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강령인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새로운 투쟁목표를 제시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부문들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공업화의 기초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며 경공업과 농업생산을 새로운 수준에로 높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속 향상시켜야 할것입니다. …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웅대한 투쟁목표를 밝힌 력사적인 5개년계획,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튼튼히 닦으며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개년계획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은 2.6배이상, 농업생산액은 2배이상 높일것을 예견한 인민경제부문별발전방향과 과업을 밝히시면서 이 기간에 공업부문에서는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고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을 다그치며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농업협동화의 완성과 함께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기본건설과 기술인재양성사업,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업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5개년계획은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고 우리 나라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였으며 보람찬 투쟁강령이였다.

정전직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고 전후복구전설을 위한 3개년계획수행에 이어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을 위한 1차 5개년계획수행의 웅대한 목표를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

잊지 못할 당 제3차대회에서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신께서 몸소 온 나라 방방곡곡의 크고작은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들을 쉬임없이 찾고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당건설과 활동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불멸의 대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의 보고에서 총결기간 우리 당의 활동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분석총화하시고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에 대하여서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종파사대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우리 당내의 형편에 비추어 종파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당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며 그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시기의 투쟁에서 전취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성을 단련하며 간부들과 당원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고 당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사상사업분야의 과업들을 밝히시면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주체를 세우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사상사업에서 나타난 사대주의, 교조주의, 형식주의적경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비판하시고 당원들에게 우리 혁명의 성격과 그 구체적임무, 장래전망을 똑똑히 인식시켜 우리 나라 혁명투쟁의 력사와 경험, 교훈으로 그들을 교양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대중정치사업은 반드시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근로대중의 사회주의적의식을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며 사상사업을 경제건설과 밀접히 결합시켜 경제건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는 당사업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우리 당건설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대회합이였던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회들에서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전략적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며 우리의 당대회들을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주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당대회들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로선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이 땅우에는 세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군 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의 열풍은 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의 거세찬 분출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오늘의 력사적인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고결한 충정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며 최대의 마력을 내여 분발하고 또 분발함으로써 커다란 로력적선물을 안고 당 제7차대회를 떳떳하게 맞이할것이다.

본사기자 강철남

혁명적구호문헌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희망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자강력은 모든 승리의 원천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전진하면 천하를 얻을수 있지만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혁명을 할수 없고 살아갈수도 없다는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여오신 정치신조였다.

주체83(1994)년 4월 어느날이였다.

외국의 어느 한 기자단을 접견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과 담화하시는 자리에서 자신의 한생의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시였다.

조선의 미래를 성과적으로 개척하려면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민족이며 조선의 미래를 개척할수 있는 힘도 조선민족에게 있다. 다른 사람이 조선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가져다줄수 없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 혁명투쟁과정에 얻은 진리이며 력사의 교훈이다. …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승리한 자력갱생림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던 때였다.

그무렵 무산광산(당시)에서는 회전식착정기로 굳은 바위층에 구멍을 뚫는 공정이 걸려 더 많은 쇠돌을 캐내지 못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락원로동계급에게 성능높은 착정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그후 무산의 철산봉마루에서 회전식착정기굴뚫기경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락원의 로동계급이 만든 회전식착정기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여러가지 회전식착정기들간의 경기였다.

경기의 승부가 어떻게 될것인가. 온 나라의 관심속에 100일간에 걸쳐 진행된 경기에서는 드디여 락원에서 만든 착정기의 위력이 단연 1등으로 평가되였다.

락원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 보시오, 결국 제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과 남을 쳐다보는 사람들과의 씨름에서 자력갱생림이 단연코 이겼단 말이요.

민족자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간직해오신 이 신념이야말로 우리 조국과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짓부시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 승리해올수 있은 정신적원천이였다.

자력갱생림이! 라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자력갱생림의 승리, 그것은 남의것만을 우선시하던 사람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종지부를 찍고 오직 자기의 힘이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우리 식 현대화의 기준

우리 식 현대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경공업공장들을 찾으실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가르쳐주신다.

2년전 11월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인민군대의 어느 한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며 높이 평가하신것도 바로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한것이였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른 식료공장들에서도 기술개건을 할 때 이 공장을 본보기,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현대화기준을 바로 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란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은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이다. …

우리의 현대화는 철저히 우리 로력과 기술로 생산설비들을 개발하고 새로 만들어내는것이다!

우리 식 현대화의 기준에 대하여 명쾌하게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다시금 새겨안았다.

우리 식 현대화, 바로 여기에 자력자강의 길이 있음을.

본사기자 백영미

혁명적동지애는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보검

온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 제7차대회를 향한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동지애는 일심단결의 기초이며 우리 혁명의 추진력이다》를 발표하신 12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93(2004)년 4월 7일에 발표된 위대한 장군님의 이 로작은 조선혁명의 전로정을 관통하고있는 동지애의 빛나는 력사와 전통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고전적문헌으로서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힘차게 떠밀어주는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보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동지애는 일심단결의 기초이며 우리 당의 정신력, 우리 혁명의 추진력입니다.》

혁명적동지애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단결의 기초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동지관과 혁명적동지애의 본질, 그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밝히시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의 위력으로 승리렬차온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로작에는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수령님의 고결한 위인적풍모와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동지애의 세계가 함축되여있으며 혁명적동지애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나갔다. 이 나날 혁명적동지애를 혁명철학, 정치철학으로 내세우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구현하여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가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선군혁명동지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되였다. 혁명적동지애를 떠나 우리 당의 존재와 강화발전에 대하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주체조선의 100년사와 양양한 전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올산으로 남기신 동지애의 숭고한 력사는 혁명적동지애, 전우애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들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함께 할 의지를 안으시고 천만군민과 말을 끼고 어깨를 겯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자욱을 내짚으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혁명활동의 순간순간을 불같은 동지적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수놓아오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의 전장으로부터 육아원, 애육원어린이들의 앞날에 이르기까지 깊이 헤아리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병사들을 찾아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는 최전방초소에도 서슴없이 찾아가신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이래 오늘 우리 혁명대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지고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은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혁명적동지애는 천만군민을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부사들로 키우는 근본바탕이다.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지시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기초한 진정한 동지적관계이다. 전사들에 대한 수령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끝까지 따르는 혁명전사의 일편단심, 이것이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오고가는 참다운 동지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수령을 떠나 동지애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동지의 세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없이 진심으로 령도자를 받들고 옹위하며 령도자의 사상과 뜻대로 살며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혁명동지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은 혁명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시는 은인이시며 끝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아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전쟁이라는 재앙의 난파도가 밀려오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그리며 당의 선군령도를 한목숨바쳐 충직하게 받들어가고있는것은 원수님의 숭고한 동지애에 진심으로 매혹되였기때문이다.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를 비롯한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들에서 펼쳐진 숭고한 화폭이 보여주듯이 최고사령관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무한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 이것이 천만군민의 신념이고 배짱이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운명의 눈부신 대양을 감히 가리워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혈연적뉴대로 이어진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굳건하며 그 권위는 절대적이다.

세계는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 수령옹위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미제와 온갖 적대세력들을 징벌하고 최후승리자가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혁명적동지애는 우리 혁명의 백승의 무기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며 원자탄보다 위력한 필승의 무기라고 밝혀주시였다.

우리의 군민대단결은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단결이며 사생결단의 반제투쟁속에서 맺어지고 공고화된 불패의 통일체이다.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한전호에서 어깨겯고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융합된 군민대단결과 같은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다.

오늘 혁명과 건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군민대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그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가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대고조전투장들에서 군민협동작전으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승리를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군대와 인민사이에 뜨거운 정과 사랑이 흐르고 서로 극진히 위해주는 미담들이 수없이 꽃펴나고있다. 지난해 라선땅에서 창조된 전화위복의 기적과 이 땅우에 이룩된 모든 변혁적성과들은 혁명적동지애를 선군혁명의 최강의 무기로,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핵심, 기둥으로 하는 군민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려온 우리 당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준엄한 결전의 순간순간이 흐르고있는 지금 우리의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발표되자마자 한마음한뜻이 되여 즉시에 결전전입태세에 들어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은 하나와 같고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도 한결같이 높다. 적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원쑤들을 모조리 불도가니속에 쓸어넣을 멸적의 의지로 만장약된 인민군장병들과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틀어쥐고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리고있는 인민들의 혁명적기상과 투쟁기풍은 우리의 군민대단결의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원쑤들의 제재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적들의 침략전쟁위협이 가중될수록 더욱 굳세여지는것이 우리의 군민대단결이다. 원쑤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고 그보다 더 강한 군민대단결의 무기가 있기에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혁명적동지애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이다.

동지애는 영웅적위훈의 원천이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뜨거운 동지애의 심장에 하나의 혈맥을 잇고 전진하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은 무궁무진하다.

지금 우리 조국땅우에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변하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새로운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가 창조되는 속에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과학, 교육, 보건 등 문화건설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일당백공격속도로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에 떠받들려 최근년간에만도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하여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 한 건축물들과 현대적인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와 같은 기적이 창조되였다. 이 자랑찬 승리는 당은 군대와 인민을 믿고 천만군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절사옹위하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천만군민이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사상과 뜻, 발걸음을 함께 해나가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 여기에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우리의 일심단결의 공고성이 있고 불패의 위력이 있다.

혁명적동지애는 오늘도 앞으로도 조선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숭고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로운 투쟁과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고 동지애로 굳게 뭉쳐진 혁명대오가 있는 한 우리 조국은 영원히 일심단결의 나라로 빛을 뿌릴것이며 주체혁명위업은 그 어떤 풍파도 뚫고 끊임없이 승승장구해나갈것이다.

오수경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기적과 혁신으로 석탄전선이 끓는다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별사복무에 석탄증산의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70일전투가 시작된 이후 련합기업소에서는 석탄생산량이 나날이 확대되여 높이 내세운 70일전투목표에 비하여 5만4천여톤의 석탄을 더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70일전투장마다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는 탄부들의 무비의 정신력!

바로 이것이 련합기업소의 격전장들마다에서 벌어지는 만리마시대 속도창조운동의 원동력이라는것은 명백하다.

하다면 이곳 일군들은 어떤 일본새와 사업기풍으로 70일전투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 한마음으로 증산돌격전에 나선 탄부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는것인가.

전투가 개시되여 며칠째 되는 날이였다. 련합기업소 갱단위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는 제남탄광 5갱과 6갱, 남양탄광 7갱의 생산수준을 돌파할 목표를 내세운 월봉탄광 회둔갱의 탄부들을 찾아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이 막장으로 들어섰다.

석탄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면서 탄부들과 마주한 책임일군은 문득 이야기를 멈추었다. 탄광적인 혁신자로 이름을 떨치던 한 탄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사연을 알아보았더니 몸이 불편하여 그날전투에 참가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책임일군은 탄광일군들과 갱초급일군들에게 그의 가정을 찾아가보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때 초급일군들은 큰 병은 아니고 전투가 벌어지는 때여서 미처 그 탄부의 가정방문을 하지 못하였다고 어쩔게 말하였다.

책임일군은 막장을 나서는 그길로 혁신자탄부의 가정부터 찾았다. 반새하여 맞이하는 탄부와 집식구들과 자리를 같이한 책임일군은 치료대책을 어떻게 세우고있는가, 가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없는가, 자식들은 공부를 잘하고있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한 혁신자탄부의 가정을 돌아본 책임일군은 생산일면만 생각하면서 탄부들의 생활문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한데 대하여 크게 자책하였고 그날로 또다시 그 탄부의 집을 찾았다. 귀한 약재들과 생활용품 등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책임일군은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별사복무해나아가자고 그처럼 절절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그날 저녁, 생산경쟁총화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난 책임일군은 전투지휘를 하는데만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전투의 직접적담당자들인 탄부들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일군이 되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그후 련합기업소의 하루전투총화에서는 일군들이 생산실적총화에 앞서 탄부가정방문수첩을 펼쳐들고 몇명의 탄부가정을 방문하였으며 절린 문제를 풀어준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총화사업을 진행하는 체계가 세워졌다.

이렇게 되여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속에서는 담당한 갱들에 내려가 전투를 벌리면서도 어느 탄부가정에 어떤 일이 제기되는가를 환히 꿰들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는 기풍이 확립되였다.

탄광들마다에서 전투가 한창이지만 탄부들의 살림집보수대책이 세워지고 탄부들의 가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어느 하나 놓침없이 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의 모든 일군들이 맡은 사업을 계획성있게 내밀고 담당단위에 내려가 증정의 70일전투를 벌리면서 탄부가정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매주 2차이상 정상화하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어느 막장, 어느 갱에서나 기적파도 같은 생산성과가 이룩되고있는 벌바람에는 전투실적을 론하기에 앞서 탄부들의 생활상문제를 풀어주는것을 가장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의 이런 사업기풍, 투쟁기풍이 놓여있는것이다.

제남탄광 9갱, 월봉탄광 회둔갱, 남양탄광 2갱의 탄부들이 앞선 갱단위들의 생산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월 1만생산목표돌파를 결의해나섰고 서창청년탄광, 형봉탄광, 월봉탄광, 제남탄광 지상단위 당원들은 돌격대를 뭇고 막장으로 들어가 만리마시대 새로운 진군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이 멀리 떨어진 명산군의 험한 림지에 올라 70일전투승리의 돌파구를 열 때 탄광기계공장에서는 한주일동안에 100대의 탄차를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구내를 메우다싶이 지원물자를 가지고 갱들로 달려오는 녀맹원들, 탄부가족들이 바쳐가는 지원의 마음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하루가 다르게 갱들에서, 탄광들에서 생산실적이 폭폭 오르는 가운데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련합기업소에 펼쳐진 격동적인 현실은 말해주고있다.

탄부들의 70일전투열의가 높을수록, 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 앞선 단위를 따라잡기, 따라배우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수록 70일전투의 지휘성원들은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별사복무해나아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를 실천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만리마시대 새로운 속도창조의 불길은 당의 인민중시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리 일군들의 탄부들을 위한 발걸음에 의해 더욱 세차게 타오르는것이 아니겠는가.

전투승리를 담보한 묘술

천내탄광에서

당이 부른 증정의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천내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매일 높아진 석탄생산계획을 철천 넘쳐 수행하는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것입니다.》

증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였을 때 있은 일이다.

일군들은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사람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면 어떤 어려운 과업도 능히 해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옳은 생각이였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묘술을 찾아쥐는것이 중요했다.

어떤 방법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사색을 거듭하던 김명호, 서석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탄광에 배치되여온 제대군인탄부들속으로 들어가 피끓는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탄광에서는 비상히 앙양된 젊은 제대군인탄부들로 돌격대를 무었다. 그리고 막장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기본굴진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과업을 대담하게 맡겨주었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인 제대군인탄부들을 본보기로 내세워 온 탄광에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혁명적인 일본새를 따라배우는 된바람을 일으키자는것이였다. 그것이 바로 대중발동의 묘술의 하나였음을 실천은 증명했다.

제대군인탄부들은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떨치던 그 정신과 그 기질, 그 본때로 굴진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로력도 자재도 부족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대군인탄부들은 조국보위는 물론 사회주의건설도 맡아 본보기를 창조하던 어제날의 병사들답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이들의 강의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에 의해 갱막장들마다에서는 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굴진속도가 창조되였다.

《새 기준, 새 기록 계속 돌파!》, 《제대군인돌격대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현장속보판에는 이런 혁신적인 소식들이 연방 나붙었다.

제대군인탄부들의 투쟁소식은 온 탄광을 끓게 했다.

전례없는 위훈이 창조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탄부들은 기적은 바로 인민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에서 창조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였다.

70일전투의 나날 충성갱과 화라갱, 내동갱과 혁신갱을 비롯한 탄광의 그 어느 일터에서나 석탄증산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었다.

일군들과 탄부들은 제대군인탄부들처럼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한몫씩 맡아 해제낄 비상한 각오를 안고 공기식채탄기를 새롭게 개조하여 버력처리능력을 최대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뿐이 아니다.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운반이자 생산이라는 자각을 안고 자체의 힘으로 20여대의 탄차들을 새롭게 제작하여 탄광에서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대군인탄부들의 심장을 먼저 두드린것, 이것이 바로 전투승리를 담보한 묘술이였다.

시추탐사속도 10배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회안석탄탐사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회안석탄탐사대에서 70일전투의 시작과 함께 굴지의 탄전인 남덕탄광지구에 또 하나의 유망한 탄밭을 마련하기 위한 맹렬한 시추전투를 벌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탐사대원들은 육중한 시추설비들을 단 3일동안에 이동전개하고 시추탐사속도를 종전에 비해 10배로 끌어올리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그리하여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고 또 하나의 유망한 석탄매장량확보지를 마련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곳 탐사대에서는 탐사설비를 고속도화, 정밀화할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석탄매장량확보탐사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고있다.

오호현, 리희남동무를 비롯한 탐사대의 일군들은 대담하게 결심하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현대적인 시추설비를 막장에 도입함으로써 70일전투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현대적인 탐사설비를 마련한 탐사대에서는 종요석탄매장량탐사대상지를 남덕탄광지구로 선정하고 여기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하였다.

일군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면서 시추설비를 탐사대상지로 선정된 막장에 들여놓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이곳 탐사대원들은 시추설비를 해발고높은 산마루로 끌어올린 다음 수백m의 갱도구간을 무사히 통과시켜 정확한 시추위치에 이동전개하였다.

시추막장에 전개된 현대적인 시추기는 종전에 비해 10배 되는 속도로 지심의 바위층을 수직으로 타직하면서 석탄매장층으로 부단히 접근하고있다.

탐사대의 일군들과 탐사대원들은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관리하면서 시추설비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함으로써 굴지의 탄전에 또 하나의 유망한 탄밭을 조성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다.

70일전투승리의 열쇠—자강력제일주의

전례없는 혁신으로 년간계획 완수

사리원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3월 31일까지 년간계획을 105%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계획수행기간 김학철, 배정남동무를 비롯한 탄광일군들은 70일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갔다.

탄광참모부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자재보장과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탄밭을 너너히 마련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비생산단위 종업원들이 석탄생산에 떨쳐나서도록 로력조직을 짜고들었다. 석탄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일군들은 동발나무생산현지에 직접 내려가 련관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백수십㎥의 동발나무를 실어들임으로써 석탄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수 있게 하였다. 석탄생산의 큰 몫을 맡고있는 혁신갱과 청년갱이 앞장에서 내달렸다. 이 갱들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모든것이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완강한 공격전을 들이대며 높이 세운 석탄생산계획을 매일 250—300% 수행하였다.

사리원시당위원회를 비롯한 시의 21개 단위들에서 수많은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탄광에 찾아가 탄부들의 증산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석탄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자력자강으로 70일전투계획 수행

혜산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70일전투에 반영된 석탄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였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탄광에서는 석탄증산을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군들모두가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대오의 앞장에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춘동갱 박철남굴진소대, 최용식굴진소대, 채탄소대에서는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부름앞에 자신들을 세워보며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으며 채탄갱의 전투원들은 매일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발파대의 로동자들은 탄광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면서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갔다.

석탄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김철, 허수웅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대정림산사업소와 룡서군의 산판에 올라 림산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통발나무를 생산함으로써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70일전투목표 련이어 점령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7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결의목표를 앞당겨 점령한 중대, 소대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중봉탄광 3갱 채탄2중대 리광명소대 탄부들은 합리적인 발파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본베아를 비롯한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일석탄생산계획을 최고 2.5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소대는 3월 27일까지 70일전투목표를 103.5%로 넘쳐 수행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룡인탄광 1갱 채탄중대 리철수소대에서도 매일 맡겨진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힘차게 내달려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봉탄광 3갱 채탄2중대 을일영소대, 1갱 채탄2중대 황성국소대, 룡인탄광 금사갱 채탄중대 피태일소대에서도 힘찬 투쟁을 벌려 70일전투결의목표를 점령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중봉탄광 3갱 채탄2중대, 룡인탄광 1갱 채탄중대, 학로탄광, 궁심탄광의 소대들이 70일전투목표를 점령한데 이어 많은 중대, 소대들이 그 대렬에 들어서기 위해 최후돌격전을 벌이대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천성청년탄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060호 주체105(2016)년 4월 5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체육장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완수

강원도림업관리국에서

증정의 70일전투에 떨쳐나선 강원도림업관리국아래 모든 단위에서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나무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관리국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이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도록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활신하게 벌리였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관리국 일군들은 3월중으로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낼 목표를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책임일군들이 림산사업소와 갱목생산사업소들을 맡고 내려가 로동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었다.

관리국에서는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남먼저 끝낸 안변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는 한편 단위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통나무생산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세포갱목생산사업소와 회양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맡은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단위들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은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나무베기를 앞세우고 물전기재들의 리용률을 높여 산지통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이들은 연유가 긴장한 조건에 맞게 대용연료를 적극 받아들이고 쇠바줄을 비롯한 자재들을 에견성있게 확보하여 베여낸 통나무들을 제때에 끌어내리였다.

통나무생산에서 많은 몫을 맡은 관료림산사업소에서는 로력과 설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관리국적인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통천, 천내갱목생산사업소에서도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동차와 뜨락또르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탄광에 필요한 동발나무생산을 부쩍 늘이였다.

현지보도반

과수의 기계화, 과학화, 집약화를

1 000여정보의 과수원 새로 조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과 수산, 과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더욱 풍족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신 55돐을 맞으며 과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올해에도 과일대풍을 안아오기 위해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과수농장들에서 70일전투가 시작된지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1 000여정보의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였다.

각지 과수농장들에서는 종전의 품종들보다 열매맺는 기간이 빠르고 추위와 병견딜성이 강하며 단맛과 신맛이 알맞춤한 10여가지의 우량품종의 과일나무 수백만그루를 심었다.

북청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수원조성에서 앞장섰다.

군책임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소집하신 5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270여정보의 과수원을 더 조성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작전을 전투적으로 하였다. 일군들은 토심이 얕은 논과 밭들에 과수원적지를 선정한데 맞게 전호식구뎅이과 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하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해 구뎅이를 가을에 파놓으면 땅이 풍화되여 부실부실해지고 통기성이 좋아진다는것을 확증한 일군들은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뿌리가 옆으로 많이 뻗는 키낮은사과나무의 특성에 맞게 구뎅이너비를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면서 헌신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결과 9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150㎞나 되는 전호식구뎅이를 계획된 날까지 파냈다. 군에서는 과일나무심기를 적기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올해 봄철기온이 례년보다 높아져 과일나무모들의 눈트기가 일찍 시작된 조건에 맞게 나무심기를 지난 시기보다 10일정도 앞당기도록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군안의 과수농장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거름실어내기와 과일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한주일 남짓한 기간에 수십만그루의 키낮은 사과나무들을 심었다.

정양, 사리원과수농장들에서 새 과수원조성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과일증산의 방도를 종자문제에서 찾은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하여 당해 2중접에 의한 키낮은사과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3년이 걸려야 낸다던 키낮은사과나무모를 2년만에 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특히 정양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무비루스키낮은사과나무접그루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나무모생산에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온천, 장연과수농장과 숙천청년과수농장, 덕성사과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계획보다 더 많은 면적에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을 심을 대담한 목표를 세운데 기초하여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특히 숙천청년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정보당 1t이상의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낼 목표를 세우고 그 생산을 힘있게 다그쳤다.

이밖에도 황주, 단천과수농장을 비롯한 많은 과수농장들에서도 심은 과일나무들의 높은 사름률을 보장하기 위해 약뿌리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갔다.

각지 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1 000여정보의 청춘과원을 새로 조성한 기세드높이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결의안고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정보당 과일 100t생산담보 마련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70일전투로 들끓고있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과일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도록 V형초밀식재배기술에 의한 과일나무심기를 진행하였다.

이 기술은 즐지어있는 과일나무들을 한그루는 사선으로, 그옆의 과일나무는 40㎝의 간격으로 반대방향의 사선으로 심어 단위면적당 많은 과일나무를 재배할수 있는 방법이다.

75°의 각도로 나무를 심는데 맞게 나무가 부러지지 않게 지지대를 세우고 거기에 철선을 늘인다. 철선은 세선으로 늘이는데 나무를 곧게 자래우기 위해 맨밑의 철선은 땅으로부터 50—60㎝높이에 설치한다. V형초밀식재배방법을 받아들이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 밀식으로 재배하는 키낮은사과나무는 가는 실북을 만들어 갈가지를 늘이는 방법으로 수확고를 높인다. 하지만 V형초밀식재배기술은 초실북모양을 만들어 사과생산을 늘이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종합농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0여정보의 호원에 V형초밀식재배기술에 의한 과일나무심기를 대담하게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정보당 100t의 과일을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본사기자

동력식뽐프 생산

북청과수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인 동력식뽐프를 개발하여 짧은 기간에 20여대를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동력식뽐프는 무게가 작을뿐만아니라 분무압력이 높아 농약과 영양액의 분무립자를 미세하게 뿌린다. 또한 이 뽐프는 안개식분무기와 자행식분무기 등에 설치하면 과수뿐아니라 농산작업에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다용도화된 동력식뽐프가 제작완성됨으로써 과수부문에서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고 병해충구제를 원만히 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주형, 심형장비를 새롭게 만들고 조형틀을 갱신하여 동력식뽐프의 본체를 튼튼히 만들었으며 크랑크축도 가공하였다.

농업성의 일군들도 현장에 내려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4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4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조국수호와 인민사랑의 위대한 친신》이 개막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을 모신 사진문헌이 전람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다.

전람회장에는 사회주의조국수호와 인민사랑의 위대한 혁명실록을 수놓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드리시고 삼가 인사를 올리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천만군민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짤바람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의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겨주고있다.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락철한 령도력이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최종명령서에 수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에 어리여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으시여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강국의 령마루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대하여 전하고있다.

인민을 위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담은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성과적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이 전람회장에 모셔져있다.

전람회장에는 또한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며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천지개벽되고있는 조국의 모습과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려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다.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이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박춘남문화상은 개막연설에서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상최대의 영광이고 행운이라고 말하였다.

보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충정의 70일전투의 순간순간을 영웅적위훈으로 수놓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외국인들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날로 더욱 꽃펴나는 사회주의문명의 발전면모를 목격한 외국손님들이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몽골 울란바따르시친선대표단 단장 에르데네 바뜨—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은 그 규모와 형식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

김정은원수님시대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모두 세계적인 수준이다.

번영하는 조선의 모습은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가 어리여있는 창조물마다에는 인민의 요구와 지향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앞으로도 조선인민이 눈부신 문명을 창조하며 더욱 발전할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조니 혼은 물라보게 번모되고있는 평양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약동하는 숨결을 느낄수 있다.

평양에는 인민을 위한 웅장한 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조선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다.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기쁨과 랑만에 넘친 모습을 보았다.

이것을 통해서도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라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조선에서는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펴나고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대표단 단원 잔 카씨에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웅장하게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은 참으로 훌륭하다.

과학기술정보봉사능력과 교육조건을 원만히 갖춘 이 배움의 전당을 돌아보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있는 조선의 옳바른 시책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전민이 찾아와 마음껏 지식의 탑을 쌓을수 있는 이런 최상급의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기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복락을 누리는 조선인민이 부럽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수령결사옹위성전에로 부르는 신념의 웨침

가마포수산사업소 2선단 안강망선 1728호 선원들의 영웅적최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인민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운명의 전부로 여기고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하늘땅 끝까지 따르는 위대하고 충직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의 이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는 행복하고 례사로운 날들뿐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준엄한 시각에도 변함이 없는 일편단심이다.

지난 3월 23일 황해남도의 한 해변가에서는 인민군군인들에 의해 한구의 시신이 발견되였다.

그의 품에서 순간도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된, 목과 허리에 끈으로 동여맨 붉은 비로도천을 씌운 모심함이 사람들의 눈길을 모았다. 함의 뚜껑을 열고 그속에 있는 비닐박막과 하얀 종이를 한점 또 한점 풀어헤쳤을 때 사람들은 크나큰 감동으로 하여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글 한방울, 습기 한점 스며들지 않게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

해당 기관 일군들은 그가 바로 풍랑속에서 뜻하지 않게 침몰된 가마포수산사업소 2선단 안강망선 1728호의 선장이였던 홍성관동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1728호가 침몰된것은 지난 3월 9일 1시경이였다.

그때로부터 근 보름가량 날바다의 세찬 파도속에서도 우리 인민모두가 자기 운명의 전부로 생명보다 더 귀중히 심장속깊이 간직하고 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한목숨바쳐 결사보위한 영웅전사.

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가마포수산사업소 지배인 김성철, 초급당비서 최동원동무들이 가슴을 두드리며 오열을 터쳤다.

《성환이, 눈을 뜨오. 이렇게 돌아오리라고 온 사업소가 얼마나 기다린줄 아오?! 70일전투를 부락하여야 그 아까운 동무들은… 어디에 두고…》

꺽꺽 눈물속에 말을 채 맺지 못하는 일군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종업원들.

그들의 눈앞에 최후의 시각 하고싶은 천백마디의 말을 합치고합쳐 《70일전투를 부락합니다!》라는 마지막말을 남기고 떠나간 안강망선 1728호 선원들의 모습이 영웅적군상처럼 선히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는 목숨바쳐 지켜야 할 혁명가의 가장 고상한 품성입니다.》

사람의 한생에서 30분은 말그대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끼듯이 인생길의 한점에 불과한 그 순간이 때로는 인간의 진모습을 사진처럼 선명하게 드러내보일 때가 있다.

1728호 선원들의 최후가 바로 그러하였다.

집채같은 파도가 잦을줄 모르며 김길이 날뛰는 격랑속에서 배가 기울기 시작한 때로부터 마지막공개대화가 있기까지는 불과 30분, 분분초초를 다투며 차디찬 바다물속에 침몰되는 크지 않은 75hp 목선.

그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선원들의 심장은 무엇으로 세차게 고동쳤던가.

그것은 사진에도 찍혀지지 않았고 기록장도 없다. 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마지막공개대화를 통해 그 숨결을 느낄뿐이다.

우리의 이 글은 운명적인 그 30분간에서 몽금포수역에 해상경보가 내려져 고기배들이 신속히 대피하던 몇시간전으로 거슬러오른다.

지난 3월 8일경 몽금포수역의 어장에는 초당 13~18m의 강한 북서풍이 불어쳤다. 해상경보였다. 어장에 있던 고기배들에 안전한 포구로 대피하라는 긴급지령이 떨어졌다.

가마포수산사업소의 고기배들도 대피수역으로 기동을 서둘렀다. 1톤 돌고기라도 더 잡기 위해 애쓰던 1728호도 뒤늦게 선단을 따라섰다.

대피수역은 이미 서해안의 여러 수산사업소 고기배들로 붐비고있었다. 1728호는 그곳에 채 못 미쳐 석도앞에 닻을 내렸다. 대피수역으로부터 바다쪽으로 1㎞가량 앞쪽이였다.

1728호가 그곳에 닻을 내린 리유를 현장지휘를 하던 사업소의 기사장도 그리고 다른 선장들도 잘 알고있었다. 늘 봐야 일욕심이 많고 배짱이 드센 1728호 선장이였다. 해상경보신호가 내리면 침착하게 그물을 거두고는 뒨 마지막에 선단을 따라섰고 일단 파도가 잦으면 선단의 맨앞에서 어장으로 향하군 하였던것이다. 그날도 바람이 즐즐해지면 남먼저 어장으로 내달아 만선의 배고동을 제일먼저 높이 울리려는것이 1728호 선장과 어로공들의 결심이였으리라.

저녁무렵 물결이 점점 높아졌다. 바다바람도 기승을 부렸다. 배들의 갑판에는 얼음버캐가 생겼다. 그속에서도 1728호는 후퇴를 모르고 끄떡없이 버티고있었다.

그런데 칠흑같은 어둠이 짙게 드리운 9일 0시 30분경, 대화기를 통해 위급한 정황을 알리는 홍성관동무의 목소리가 울렸다.

《선체에 물이 들어온다. 모두가 물을 푸고있다.》

비상정황이였다. 1728호를 구조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즉시에 진행되였다.

사업소의 고기배들이 닻을 올리고 파도를 맞받아 출항하였다. 한치 앞도 가려볼수 없는 짙은 어둠, 당장이라도 배를 뒤집어놓을듯 덮쳐드는 파도, 우—우— 사납게 울부짖는 바람…

그속에서 구조선들은 1728호가 위치한 수역으로 한치또 한치 전진해갔다.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자는 동지적의리로 그들의 온몸은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흘러가는 한초한초가 한시간맞잠이로 여겨지던 그때 그들을 타소나마 안심하게 한것은 대화기를 통해 울려나오는 홍성관선장의 담담하면서도 결단성이 내비친 목소리였다.

우리는 배가 침몰되기 전까지 대화기를 통해 1728호의 상황을 전한 홍성관동무의 목소리를 아래에 전한다.

《모두가 자기 초소를 지키고있다. 최선을 다하고있다.》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조타실에 물이 들어온다.》

《사업소에 보고해달라. 조타실을… 정리하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셨다. …

70일전투를 부락합니다!》

그것은 1728호의 마지막 숨결이였다.

최후의 순간에조차 한몸의 생사보다 먼저 자기 수령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보위한 충정의 인간들, 자기들은 비록 죽어도 자기들의 몫까지 합쳐 70일전투를 기어이 부락하여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으로 눈굴을 적시고있다.

하기에 가마포사람들은 기쁠때도, 어려울때도 언제나 사업소구내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적표식비를 찾군 한다.

이 크지 않은 포구에도 나라의 수산업발전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지극한 자욱이 새겨져있다.

가마포사람들 누구나 그러하듯이 안강망선 1728호 선원들의 가슴속에는 영광의 포구에서 살며 일한다는 높은 긍지와 영예가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다.

바로 뜻깊은 혁명사적표식비앞에서 탕앞에 맹세한 물고기잡이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마음속 결의를 다지고 충정의 70일전투에 진입한 1728호 선원들이였다.

첫 출어를 앞둔 날 저녁 홍성관동무는 밤이 이슥하도록 배전을 둘둘 돌았다. 빈틈이 없는가 몇번이나 배전을 돌아보고 또 돌아본 그였지만 쉬이 집으로 발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는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안해 강경실동무가 포구에 나갔었다. 그때까지 남편은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이윽토록 바다를 바라보고있었다. 래일은 출어하겠는데 하루밤만이라도 집에서 발편잠을 자야 하지 않겠는가고 걱정하는 안해에게 홍성관동무는 조용히 말했다.

《지난해 우리 배가 도직으로 3등을 하고 혁신자소개관에 사진까지 나붙어 당신이 얼마나 좋아했소. 나도 기뻤지. 크지 않은 목선을 가지고 그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던. 그런데 내 생각이 짧았소. 당 제7차대회를 맞는 뜻깊은 올해를 빛내이자고 우리 당에서 70일전투를 발기하였는데 난 성과에 만족해서 제자리걸음을 했소. 난 배사람의 의리를 저버릴번 했소. 이번에는 죽으나사나 1등을 해야겠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갈리는것을 감촉한 안해는 슬며시 고개를 들렀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마저 잃은 자기를 당에서 한품에 안아 어로공으로 키워주었다고, 다른 나라같으면 길가의 조약돌처럼 나딩굴었을 자기를 조선로동당원으로, 선장으로 내세워준 당의 품이 곧 어머니품이라고 입버릇처럼 외우던 남편.

너무도 고지식하고 가정일보다 배일을 먼저 생각하며 남의 일이라면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도와주는 그의 가슴속에 그 얼마나 뜨거운것이 고패치고있는것인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날밤 남편에게 따끈한 국을 대접하지 못한것이,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보태지 못하고 바다로 떠나보낸것이 마음에 걸려 한생 내려가지 않을것이라고 말하는 강경실녀성의 눈가에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이런 소박하면서도 진심이 비낀 이야기는 1728호 선원들 어느 가정에서나 들을수 있었다.

출어를 앞두었을 때 배의 년장자인 최동원동무가 어느 하루 딸네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안해는 무릉 기뻤다. 늘 일이 바빠 언제 한번 제발로 딸네 집에 간적없는 남편이에서 이제 가면 곡 쉬고 돌아오라고 몇번이고 부탁했었다. 그런데 아침에 떠난 그가 어둠이 깃들기도 전에 수심리길을 되돌아왔다. 의아해하는 안해에게 최동원동무는 《70일전투로 온 사업소가 끓고있는데 한가하게 나들이를 다닐새가 없소. 이번에 가서 딸과 사위에게도 오금을 박았소. 전투이니만치 마음속준비를 갖추고 광산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말이요. 난 곧장 배에 나가봐야겠소.》라고 말하고는 그길로 사업소로 향했다.

이제 바다에 나가면 몇달이 지나야 집에 돌아오겠는데 운반선이 오갈 때마다 잊지 말고 편지를 하라는 젊은 안해의 청에 《편지를 하지. 매일 사업소에 나가보오. 경쟁도표판에 오르는 우리 1728호의 붉은 줄에 내가 하고싶은 말이 다 담겨있소. 그 붉은 줄이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요.》라고 《선선히》 응하여 온 집안에 웃음꽃을 피운 부선장 강철남동무.

얼마후면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아들들을 앉혀놓고 북인민군대에 입대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바다에서, 너희들은 조국보위초소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여 당 제7차대회를 멋멋이 맞이하자고 응심깊은 당부를 남긴 최용남, 김철운동무들.

수리전투로 밤을 새우는 동무들의 손에 집에서 준비한 벌식도 쥐여주며 우리모두 마음을 합쳐 꼭 1등의 영예를 지녀자고 고무해주군 하던 최기덕동무.

참으로 그들은 어느모로 보나 한모습이였다. 가정보다 바다를 더 사랑한 사람들, 가슴속에는 한몸이 그대로 그물이 되고 추진기가 되여 1톤의 물고기라도 더 잡을 생각만이 꽉 차있는 달리는 살수 없는 가마포사람들이였다.

이런 신념, 이런 지향으로 한 선원들의 마음속 한구석은 서운하였다.

더우기 지난해 평안남도수산관리국적인 외통식고기배 수산물생산실적에서 1728호가 3등을 한 뒤에서 뜻깊은 올해에는 이렇게 하나 1등을 하자고 모두가 욕버르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그때 홍성관동무의 목소리가 울렸다.

《바다사람이라면 바다처럼 속이 확 열려야지 그렇게 좁아서야 어떻게 날바다를 길들이겠소.》

배심좋은 그 말이 분위기를 돌려세웠다. 홍성관동무는 이어 앞으로 외통식대신 두통식안강망을 설치하여 서해적으로 아니 수산성적으로 꼭 앞자리를 차지하자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일밖에 모르는 선장, 그래서 더 존경이 가고 믿음이 가는 홍성관동무를 바라보며 부선장은 품속에서 보풀이 인 책을 꺼내 펼쳐들었다. 그 책은 언제인가 훌륭한 바다사람이 되자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장이 기념으로 준것이였다.

《선장동지, 제가 좀 생각한것이 있는데…》

《좋은 일이구만. 어서 펼쳐놓소. 혼자서 속을 썩이지 말고 집체적으로 의논해보기요.》

어느새 선장, 부선장주위에 어로공들이 어깨성을 쌓았다. 그들은 웃고웃으며 서로의 지혜를 합쳐갔다.

그럴 때면 서해도 잔잔한 갈기를 일으키며 한가정처럼 화목한 1728호의 선체를 부드럽게 어루쓸었다.

그렇다. 비록 날바다우에 떠있을 망정 안강망선 1728호는 당중앙뜨락과 이어진 운명의 피줄로 굳게 뭉친 어로전사들이 지켜선 혁명초소였다. 사나운 파도를 맞받아싸우는 물고기잡이전투는 그대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였다.

1728호의 8명 선원들은 비록 우리곁에 없어도 그들이 서있던 혁명초소는 오늘도 굳건하다.

그 초소를 지켜 지금 그들의 안해들과 자식들이 포구로 달려왔다. 남편들, 아버지들이 못다한 몫까지 합쳐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애국충정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안해들인 강경실, 리월선, 정춘녀, 김명화, 리선옥, 김정희, 조해순동무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 사업소의 배수리를 헌신적으로 도와나섰다. 최미현, 최봄향동무들도 아버지들이 못다한 70일전투를 이어가겠다고 열렬히 제기하고 어장으로 향하는 고기배에 올랐다.

얼마전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최용남, 김철운동무의 아들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할것을 결의해나섰다. 그날 혁명사적표식비앞에 삼가 꽃송이를 드린 그들은 이렇게 결의다졌다.

《지금 아버지들은 늘 우리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당부하군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민군대에 입대할것을 결의다졌습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뼈속깊이 체질화한 다음 꼭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들이 섰던 초소를 대를 이어 지켜가겠습니다.》

1728호의 막내로 사랑받던 김승범동무의 어머니가 아들의 희생소식을 전해듣고 사업소로 달려와 일군들에게 한 말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가마포어로공이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던 승범이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난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온 나라인을 돌보시느라 그처럼 분망하신 우리 원수님께서 고기배선원들을 모두 높이 내세워주셨는데… 난 아들을 장하게 여깁니다. 내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70일전투를 부락한다고 하였는데 이 늙은이에게도 일감을 주시오.》

소박한 어머니의 심정이자 우리모두의 마음이다.

그렇다. 가마포의 8명 선원들은 결코 우리곁을 떠나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 영웅적으로 희생된 가마포수산사업소 2선단 안강망선 1728호 선장이였던 홍성관동무를 비롯한 선원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시고 유가족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온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그 사랑을 전하며 서해는 격정을 안고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귀기울이느라면 솨—솨— 파도소리에 실려 8명 선원들의 최후의 목소리가 금시라도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 심장은 후더워만진다.

70일전투를 부락합니다!

그 신념의 웨침과 더불어 영웅전사들의 불굴의 모습은 우리모두를 수령결사옹위성전에로, 충정의 70일전투승리의 결승선에로 힘차게, 힘차게 고무해주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본사기자 김호혁

주조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만경대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이 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도 숭고한 헌신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일가분들의 고귀한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손님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또한 이날 손님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로동당시대의 멋쟁이건축물로 웅장화려하게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몽골대사관에서 나무심기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몽골방문 60돐과 몽골인민혁명승리 95돐에 즈음하여 6일 주조 몽골대사관에서 나무심기가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조선몽골친선협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과 몽골 림시대리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마음안고 잣나무들을 심었다.

평양외국어대학에 로므니아대사관에서 교재 기증

평양외국어대학에 주조 로므니아대사관에서 교재들을 기증하였다.

게오르게 쵸아꺼 림시대리대사가 6일 대학일군에게 교재들을 전달하였다.

이에 앞서 대사관성원들은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온 대학의 력사를 보여주는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막장의 숨결을 지켜

2.8직동청년탄광 3갱 채탄3중대 제대군인당원들이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얼마전 전진파정에 뜻밖의 난관에 부닥쳤을 때 당원들은 앞장에서 결사전을 벌렸다. 바위들을 함마로 까내고 낡은 동발을 톱으로 켜며 한치한치 전진해가는 그 모습은 그대로 전화의 나날 당원증을 피로 물들이며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제낀 화선용사들의 모습그대로였다.

이런 결사의 투쟁은 중대한 부들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온 중대가 떨쳐나 3일만에 생산동음을 또다시 높이 울려갔다.

오늘도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철야전군을 다그치고있는 중대의 앞장에는 미더운 제대군인당원들이 서있다.

로농통신원 김청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담화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해마다 벌려놓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몰아오는 침략전쟁책동으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미국은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합동군사연습이 남조선파의 《호상방위조약》에 따른것이기때문에 《합법적》이며 저들이 조선정전협정을 《준수》하는것처럼 광고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궤변이며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세계여론을 기만하려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합법성》의 근거로 삼고있는 미국남조선 《호상방위조약》자체가 조선정전협정에 완전히 배치되는 비법적인 문서장이다.

정전협정에는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내에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데 대한 조항이 밝혀져있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협정에 지적된 정치회의소집기한이 되기도 전에 남조선괴뢰들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이 《조약》에서 그 무슨 《위협에 대항》한다는 구실밑에 자기의 육해공군무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무기한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규정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미군주둔을 고착시킨것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정면도전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애당초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었다.

미국이 진짜로 바란것은 오직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합법화하여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를 영원히 가로타고앉는것뿐이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1954년에 열린 조선문제와 관련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켜 정전협정에서 예견됐던 조선에서의 모든 외국군대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영영 막아버렸으며 저들의 속심추구에 지장이 되는 정전협정조항들을 제멋대로 파괴해버렸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유린하고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고착시킨 다음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감행하여왔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호상방위조약》에 따르는 《년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정당화하고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기만이라는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이번에 옹근 한개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과 각종 핵전략자산들을 총동원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그 목적이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참수작전》과 《평양점령작전》, 《북종심내륙진공작전》을 실전에서 검증하는데 있다는것을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이것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것을 규제한 정전협정의 핵심사항에 대한 위반정도가 아니라 협정의 완전한 파기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선전포고로 된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는것도 정전협정의 목적으로 내세운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조항은 물론 평화의 파괴를 초래할수 있는 국제적분쟁을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규제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심히 어긋나는 비법행위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은 남조선괴뢰들과 체결한 《호상방위조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법률적기초로 하여 전 조선반도를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고 패권적인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미국이 해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책동을 가증시켜왔기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조선반도정세는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태에로 치달아오르게 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의 무력증강과 합동군사연습이 《유사시》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데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 역시 도저히 통할수 없는 생억지이다.

조선에서 전쟁이 터져 미군이 피해를 당하는것이 정말 우려된다면 모든 무력을 걸어가지고 제땅으로 돌아가면 그만일것이다.

미군이라는 암적존재만 없어지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전쟁위험을 초래하는 근원이 제거되여 평화적인 환경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그러나 오늘 조선반도에는 열핵전쟁을 막을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장치도 없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만 더욱 증대되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며 주권국가의 응당한 자위적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해나갈것이다.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연습책동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주체105(2016)년 4월 6일
평 양

흥덕구역 은덕산업병원 의료일군들과 흥서동 주민들

평범한 로동자를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 집단주의의 본질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함흥시 흥덕구역 은덕산업병원으로 한 환자가 실려왔다.

쇼크상태에 있는 환자의 입술은 창백했고 복부는 심히 부풀어있었다.

《도인민병원으로 후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자를 후송해온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상태로 후송하다가는 생명을 담보할수 없습니다.》

산부인과 과장 리성희동무의 말이였다.

긴급소집된 병원의사협의회에 이어 수술이 진행되였다. 긴장한 한초, 한초가 흘렀다. 산파직종들이 있어 수술이 몹시 어려웠지만 리성희, 조경옥, 김철남동무를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은 모든 조작들을 능숙하게 진행해나갔다.

얼마후 수술장을 나서는 리성희동무에게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다. 리성희동무의 땀젖은 얼굴에 미소가 어리였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수술이 잘됐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이웃들은 저저마다 리성희동무의 손을 마주잡았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담당의사, 담당간호원인 조경옥, 김국화동무들은 환자곁으로 잠자리를 옮기였다. 많은 약물이 환자의 몸으로 쉬임없이 흘러들었다.

환자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면서 맥박이 알리기 시작했을 때 병원의료일군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그들이 환자의 이름이며 직업 등을 알게 된것도 바로 그때였다.

《내가 이 동무를 알아요. 구역산림경영소에서 일하는 박순남, 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종종 치료받으러 왔었는데 얼마나 상했으면 못 알아봤을가. …》

온밤을 환자의 곁에서 뜬눈으로 새운 조경옥동무가 눈금을 흘치며 하는 말이였다.

온 병원의료집단이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을 때 박순남동무의 인민반에서는 온 마을이 떨쳐나 그의 가정과 자식들에게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고있었다.

환자는 평범한 로동자,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바치고 진정을 다하는것인가. 얼마전 흥덕구역 흥서동 78인민반 주민들이 구역당위원회의 책임일군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환자가 퇴원한지도 여러날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의료일군들은 아직도 그를 찾아와 정성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정녕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함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에서 온 인민반이 힘을 얻고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충정의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빛나게 수놓아가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을 어머니로 따르며 온 마을이 한식솔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돈보이는것인가.

본사기자 리경일

호수가의 작은 학교

금성호는 그림같이 아름답다. 맑은 거울처럼 해빛을 받아 반짝이는 푸른 물면과 호수둘레로 련련히 뻗어있는 울창한 수림, 그와 한데 어울려 수려한 경치를 노래하듯 유정하게 솔리는 물새와 산새들의 지저귐…

이렇듯 아름다운 경개를 자랑하는 금성호반에 얼마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는 새 풍치가 펼쳐졌다.

인적드문 사슴골의 양지바른 곳에 아담한 교사가 새로 일떠서고 아침마다 정답게 울려퍼지는 종소리와 더불어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랑랑한 글소리가 산천의 고요를 깨치며 호수가의 맑고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지난 1일 새로 일떠선 덕천시 삼탄소학교 사슴골분교에서는 새 학년도를 맞으며 뜻깊은 개학식이 진행되였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때면 이 땅 어디서나 볼수 있는 례사로운 화폭이지만 자그마한 운동장에 줄지어선 몇명 안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단 한명의 아이를 위해서도 학교가 일떠서는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아래 하루종일 가야 뭇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골안을 메우던 외진 곳에 새 교사가 일떠서고 얼마전에는 도시에서 꽃다운 처녀교원이 분교선생님으로 단원해온데 이어 아담한 운동장까지 갖춘 학교에서 오늘은 이렇게 뜻깊은 개학식이 진행되고있는것이다.

하다면 호수가의 작은 학교, 여기에는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지금으로부터 한해전 늦은저녁 덕천시당책임일군의 사무실로 어느 한 시급기판에서 일하는 윤철명동무가 들어섰다.

그날 볼일이 있어 금성호반의 사슴골을 찾았던 윤철명동무는 그곳의 소학교분교가 세워진지 퍼그나 오래되여 빈구석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던것이다.

그는 시당책임일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분교건설사업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때부터 천연수림의 정적만이 깃들어있던 사슴골안에서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분교건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윤철명동무는 그야말로 하루를 분과 초로 쪼개가며 살았다. 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일들을 말아해제끼는 속에서도 그는 분교건설을 위한 자재를 마련하기 위해 수백리먼길도 서슴없이 떠났고 시내에서 사슴골까지 수림을 헤치며 운영도로를 내기 위한 전투로 전설자들과 한밤을 지새기도 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어찌 네일내일이 따로 있는가고 하며 그의 안해 백창희동무도 건설사업에 지성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난해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금성호반의 사슴골에는 교육조건과 환경이 그른히 갖추어진 새 교사가 번듯하게 일떠섰다.

그후 윤철명동무를 비롯한 시안의 일군들은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에서 자그마한 빈틈이라도 있을세라 시내에서 수십리 떨어진 분교를 때없이 찾고 또 찾았으며 얼마전 70일전투가 벌어지는 바쁜 속에서도 새 학년도를 앞둔 학교에 또다시 많은 교구비품들을 보내주었다.

비록 외진 산중에 일떠선 자그마한 분교이지만 도시학교들부럽지 않게 훌륭한 교수교양조건을 갖춘 덕천시 삼탄소학교 사슴골분교에서는 오늘 평범한 근로자들의 아들딸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하기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외진 산중에 펼쳐진 가슴뜨거운 화폭앞에서 이렇게 마음속진정을 터놓고있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은혜로운 해빛 넘쳐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본사기자 리남호

30일을 8일로

운산메기공장건설장에서

정복의 두메 운산군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지금 여기서는 생산능력이 큰 메기공장건설이 한창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군에 있는 온천을 리용할수 있게 건설하는 메기공장은 수십개의 야외못, 여러동의 생산건물과 공공건물들, 1000㎥의 물저장고, 분포저수지로부터 시작되는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이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당위원회에서는 70일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메기공장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공장, 기업소, 가두인민반들에 달려나가 정치사업을 맹렬히 벌리였다.

현장지휘부가 조직되고 200명의 뜨끈한 청년들로 돌격대가 무어졌다.

건설은 어려개의 물웅덩이들을 막돌과 흔석으로 메우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처음 현장지휘부에서는 하루 600㎥의 막돌과 흔석을 운반하여 30일동안에 물웅덩이들의 일부를 메우는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첫날에 펼쳐진 화폭은 현장지휘부 일군들을 놀라게 했다.

이른아침부터 공장, 기업소들에서 떠나보낸 화물자동차들이 연방 들이닥치고 수천대의 손달구지들을 끌고 가두인민반원들이 길가에 늘어섰다. 잠간사이에 일자리가 록록 났다.

청년돌격대원들도 침실을 전개하는 한편 돌격로를 열어제끼는 심정으로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도로들을 정리하고 구릉강에 달려나가 흔석들을 채취했다.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힘있는 노래소리와 막돌과 흔석을 부리우는 소리, 삽질소리와 함성이 한데 어우러져 전설장을 들었다 놓았다.

그날 메기공장건설장의 전투기록장에는 계획량의 3배가 넘는 2000여㎥의 막돌과 흔석을 운반했다는 놀라운 수자가 기록되였다. 그렇게 철야전투의 날과 날이 흘러 8일째만에 물웅덩이들의 일부는 계획대로 메워졌다.

결국 30일이 8일로 앞당겨진것이다.

자기들의 피와 땀으로 전투기록장에 새긴 그 수자앞에서 운산군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다시금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자력자강의 신념,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자기 손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의지가 굳건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그후 운산군의 인민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돌격전을 벌려 수만㎥의 막돌과 흔석을 더 운반하여 물웅덩이들을 짧은 기간에 전부 메웠다.

운산군의 인민들에게 참으로 귀중한것을 더욱 철석같이 새겨준 8일간이였다.

본사기자 조경철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빛나는 위훈으로

—평양빛섬유통신제품공장에서—

—김책건재공장에서—

현지보도반

조국통일의 지향, 원쑤격멸의 의지안고 1000여리

판문점, 신천박물관 참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높은 계급적자각을 가지고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습니다.》

날에날마다 위훈과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전투장들을 찾아 기행길에 올랐던 우리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기행길의 목적지를 70일전투의 대고조격전장들이 아닌 반제반미계급투쟁의 전초선인 판문점과 신천박물관으로 정하였다.

오늘의 70일전투는 미제와 그 주종세력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는 침예한 정세속에서 벌어지고있는 원쑤들과의 대결전이다. 하기에 이 나라 인민들은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원쑤들의 가슴팍에 멸적의 불벼락을 안기는 심정으로 오늘의 70일전투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그 하루하루를 불길처럼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 총포성없는 전쟁과도 같은 70일전투의 격렬한 분위기는 우리의 발걸음을 판문점과 신천박물관으로 향하게 하였다.

국가관광총국 평양관광사의 주최로 조직된 참관단은 20여명의 조선태권도위원회 사범들로 구성되여있었다.

아침 8시를 알리는 평양역 시계탑의 종소리를 들으며 출발한 우리 참관단의 눈앞에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일터로 향하는 수도근로자들의 활기있는 모습이 안겨왔다.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리는 버스의 차창밖으로는 아득히 뻗어간 도로의 량쪽에 펼쳐진 70일전투의 격전장들이 파도처럼 흘러가고있었다. 어느때같으면 례사롭게 여겨질 그 모습들이 판문점으로 향한 우리의 눈에는 결코 평범하게 안겨오지 않았다.

영농전투로 들끓는 전야들에서 드바쁜 시간을 보내는 농업근로자들의 모습마저 우리에게는 오늘의 70일전투를 미제와 적대세력들과의 처렬한 대결전으로 생각하며 산악같이 떨쳐나선 화선병사의 모습처럼 격렬하게 안겨왔다.

사리원, 봉산, 서흥군 범안리를 지나 한동안 달렸을 때 이번 참관의 안내를 담당한 리향숙동무가 불쑥 《개성시가 보입니다.》라고 일행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도로 오른켠으로 멀리 보이는 공화국기발이 휘날리는 저기가 판문점 가까이에 있는 판문점리라고 덧붙였다.

판문점으로 향한 길에서 우리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화물역을 볼수 있었다.

안내원의 손길을 따라 그곳을 보면서 우리 참관단일행은 미제의 침략책동과 피뢰역적배당의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로 하여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은 강토가 아직도 둘로 갈라져있는 가슴아픈 현실을 절감할수 있었다.

피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인 단일민족으로 5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해온 우리 민족일지대 언제까지나 분렬의 이 고통을 감수하기만 하겠는가, 하루빨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마음속으로 다지며 우리는 판문점에로의 참관길을 다그쳤다.

버스안의 공기마저 우리들의 격한 감정으로 하여 불처럼 뜨거워지는것만 같았다.

시오리가량 달려 우리가 탄 버스는 《자주통일》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섰다.

류다른 정적으로 우리의 긴장감은 더해졌다. 한 인민군군관이 우리를 마중했다. 그곳이 바로 판문점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나라길시작점에서 뻗어간 평양—개성고속도로를 지나 우리는 드디여 판문점구역에 들어선것이다.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라는 대형선전판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우리는 인민군군관의 안내를 받으며 판문점에 대한 해설강의를 들었다.

잠시후 우리는 또다시 버스에 올라 판문점으로 향하였다.

《조국통일》이라는 글발을 눈여겨보며 차창밖의 풍대를 살피는 우리의 감정은 근엄해졌고 가슴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흥분이 더더욱 고조되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창밖으로 판문점으로 뻗어간 길을 새삼스레 내다보았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얼마나 많은 가슴뜨거운 발자취들이 새겨졌던가.

겨레의 소원인 통일의 열망을 안고 북과 남, 해외에서 달려온 그 순결하고 열렬한 마음들이 어우러지던 사연깊은 판문점길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마저 우리에게는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정전담판장과 정전협정조인장을 돌아본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전하는 조국통일친필비앞에 이르렀다.

조국통일을 위해 불철주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야말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어 참관단일행은 판문각 로대우에 올라섰다.

로대우에 올라서니 장장 수십년세월 한 민족을 갈라놓고 온갖 설음과 가슴아픈 상처를 들씌운 원한의 판문점분리선이 우리 눈을 아프게 찔렀다.

너비가 불과 50㎝, 한걸음에 쉽게 뛰여넘을수 있는 그 분리선을 두고 얼마나 많은 통일인사들이 멀고 험한 길을 에돌고 힘들게 넘으며 통일을 애타게 부르짖었던가.

무거운 정적, 날새들도 날기를 저어하고 흐르는 공기마저 평평한 판문점, 겨사람의 숨소리마저도 귀전에 크게 들려와 저도모르게 긴장감이 곤두서게 하는 최대열점지역 판문점, 그 너머에 바로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칼을 물고 미쳐날뛰는 원쑤들이 도사리고있다.

텔레비존화면과 사진으로나 보았던 원쑤들의 소굴을 직접 눈앞에서 보니 주먹이 떨리고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당장이라도 분리선을 뛰여넘어 극악한 원쑤들을 단매에 박살내고싶다며 참판단성원인 태권도사범 김명준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판문각에서 내려다보이는 판문점 회의장구역과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분리선이 이 가슴을 헤집습니다. 그 분리선을 두고 한 나라 강토가 그토록 오랜 세월 갈라져있다니… 한겨레, 한민족을 눈앞에 두고 우리 정녕 여기서 발길을 돌려야 한단 말입니까.》

태권도사범 임순진동무도 자기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지금껏 느껴본 봄의 훈향이 저 분리선앞에선 차디찬 겨울바람처럼 식어졌습니다. 판문교밑으로 흐르는 사천강지류도 분명히 북과 남의 땅을 함께 적시며 흐를진대 이 분렬의 아픔을 언제까지나 그냥 들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우리 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원쑤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는 통일성전에서 민족의 얼이 깃든 태권도의 맛을 보여줄것입니다.》

문득 우리의 머리속에 매일이다싶이 전해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가 떠올랐다.

당 제7차대회장으로 향한 총정의 70일전투를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왜 그토록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며 백두산대국의 군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지기 위한 투쟁을 이끌고계시는지 누구든 여기 판문점에 오면 더더욱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리라는바가 컸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일터마다에서 시간을 분분초초로 쪼개가며 70일전투의 나날을 이어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이다. 그 드바쁜 일손을 잠시 놓고 저들은 어이하여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이곳을 찾고있는것인가.

우리는 생각했다. 70일전투의 낮과 밤을 충정으로 이어가고있는 우리의 애국심에 한눈팔지 않는 모략과 《제재》로 우리 공화국을 없애보려는 원쑤들의 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기에, 당 제7차대회장으로 향한 우리 인민의 발걸음을 순간이라도 멈추어보려고 발악하는 원쑤들이 있기에 그 어느때보다도 반제반미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복수의 철추를 안기는 심정으로 일할 굳은 결의를 다지며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이곳을 끝없이 찾고 또 찾는것이 아니겠는가고.

그랬다. 우리에게는 할 일도 많고 시간도 드바쁘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창조와 행복도 조국이 있고서야 가꿀수도 빛내일수도 있기에 우리는 순간도 멈출수 없는 반제반미계급교양의 도수를 그 어느때보다도 더 높이고있는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신천땅에서 감행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신천박물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지난해에도 찾았고 얼마전에도 이곳을 찾은적있는 우리였지만 보이지 않는 격전의 순간이 흐르는 판문점을 돌아보고 신천박물관을 찾아온 이번의 심정은 뭉클했다.

우리와 동행하는 태권도사범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 어느때보다도 원쑤격멸의 의지와 조국통일의 지향을 더 굳게 새겨안고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들을 반대하는 통일성전에서 한목숨 아낌없이 바칠 굳은 결심을 다지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구호를 목청껏 웨쳤다.

평양에서 판문점으로, 판문점에서 신천으로 이어진 참관길,

그것은 진정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자주적삶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는지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해준 체험의 길이였다.

계급투쟁의 리정표와도 같은 판문점과 신천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신념의 만리길, 승리의 만리길, 행복의 만리길을 이어갈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속에 깊이깊이 심어준 잊을수 없는 기행길이였다.

본사기자 오은별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을 해치려는 대결망동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것이다

징벌의 불소나기, 무자비한 보복의 철추

일단 공격명령이 내리면 원쑤들이 배겨있는 악의 소굴인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진군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력사와 민족앞에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 박근혜역적패당의 소굴을 초토화해버리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던시 백두령장에서 울리신 승리의 뢰성이다.

얼마나 가슴후련하고 통쾌한 원쑤격멸의 장관이였는가. 강철포신들이 연해연방 내륙은 시뻘건 불줄기들로 하늘을 뒤덮은 장거리포병대의 일제사격은 섬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얼간망동이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을 짓뭉개버리는 백두의 불벼락이였다. 하늘땅을 뒤흔든 그 장엄한 포성은 그대로 우리 천만군민의 최후승리의 교향곡이였다.

이에 대하여 《KBS》, 《MBC》를 비롯한 괴뢰언론들은 《서울불바다 예고》, 《장거리포병대의 최후통첩》이라고 아우성을 쳤고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조선인민군의 의지를 립증》, 《조선의 결정적인 행동》, 《청와대에 비참한 종말 경고》, 《박근혜 위기에 직면》 등으로 대서특필하였다.

백두산군대의 장거리포병대가 퍼친 우리같은 폭음은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다져진 증오와 참을길 없는 보복일념의 대폭발이다.

최고수뇌부는 우리 군대와 인민, 민족의 심장이며 미래이다. 하기에 역적패당의 극악무도한 특대형도발망동은 이 나라 모든 가정들의 명줄에 칼을 겨눈 강도배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지금 이 땅의 그 누구의 가슴을 헤쳐보아도 심장은 수령결사보위의 의지로 맥동치고 붉은 피는 원쑤격멸의 열기로 끓고있다.

70일전투철야전군의 격전장마다에서, 조국의 천리방선, 방방곡곡에서 미친개무리들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리고 남반부를 정정하자는 격노의 목소리가 무섭게 터져나오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발표후 단 이틀동안에 150여만명의 참군열풍으로 세계를 놀래운 우리 인민의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강용한 기상은 지금 자비를 모르는 원쑤격멸전의 거세찬 용암으로 더욱 치솟고있다. 전화의 나날 노도처 내달리며 남진의 길에서 위훈떨친 영용한 근위사단들이 무자비한 선제타격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의지로 원쑤의 아성을 노리고있다. 전쟁이 일어난지 3일만에 서울로 제일먼저 욱박하여 괴뢰중앙청에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린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의 무쇠철마들이 남반부해방의 선두에서 청와대를 강철무한궤도로 짓뭉개버릴 시각을 고대하고있다. 영웅의 고지 1211고지의 전초병들도,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일당백의 고랑 대력산초소의 장병들도 단 15분만에 351고지를 점령한 1950년대 용사들처럼 적들의 아성을 단숨에 타고앉을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수령보위의 자랑찬 비행운을 새겨가고있는 우리의 영용한 매들도 돌아올 연유대신 통일대전승리의 폭탄을 만적재하였다. 강위력한 조선인민군 전략군부대들은 악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청와대상공에 불벼락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

천만군민의 이 치솟는 원한과 분노, 보복의지가 응축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백승의 전통을 이어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에게 가장 비참한 종말을 안기기 위한 무자비한 보복의 철추이다.

단 4분의 포로 수많은 비행기와 함선, 5만여명의 대병력을 동원한 미제침략자들과 맞서 무비의 영웅적위훈을 떨친 월미도용사들의 불굴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힘차게 맥박치고있다. 그 작은 섬에서 백아더의 대군을 쩔쩔매게 한 월미도영웅전사들의 멸적의 힘과 기상이 또다시 무섭게 태동하고있다. 월미도의 넋이 깃든 《해안포병의 노래》를 영원한 승리의 주제가로 부르며 무적강군의 위력을 다져온 우리의 영웅적포병들은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던 연평도의 호전광무리에게 단호한 격멸의 불세례를 안기고 도발자들에게는 추호의 자비도 모르는 백두산군대의 본때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 가슴후련한 타격전의 재현인양 우리의 장거리포병대가 무섭게 불을 토하였다. 박근혜역적패당이 제가루만 날리던 연평도의 처참한 패배를 잊고 무엄하게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섰으니 증오와 복수의 불줄기를 내뿜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정의의 포신들이다. 천지를 진감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헤가르며 번개같이 날아간 원쑤격멸의 포탄들에는 연평도불바다를 청와대불바다, 서울불바다로 이어놓을 천만군민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만장약되어있었다. 우리 장거리포병대의 영용한 포병전사들은 이 시각도 섬멸의 조준경안에 도발의 본거지들을 모조리 집어넣고 뜨겁게 탐아오른 징벌의 포신들을 내리지 않고있다. 박근혜역적패당에게 가장 참혹한 멸망을 안겨줄 남반부해방의 진군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청와대불바다와 서울불바다도 노호하는 장거리포병대의 불줄기들이 펼칠것이고 남으로 진격할 기계화부대들과 근위사단들의 돌격로도 주체포들이 열어놓을것이다. 부나비처럼 날뛰는 괴뢰군부짱패들은 청와대마귀와 함께 바늘귀를 꿰듯 정확하고 위력한 방사포의 일제사격에 무주고혼의 신세가 되고말것이다.

우리의 화력타격은 일단 시작되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이 땅에서 침략과 악의 근원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중단없이 벌어지는 무자비한 련속타격전이다.

우리는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에서 침략의 본거지들을 생존불가능하게 불무시고 완전히 괴멸시킬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여있다. 우리의 포병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는 오늘의 월미도해안포병들로 준비되였다.

우리는 뒤일을 감당할 대책도 없이 설치대는 도발자들에게 이미 엄숙히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쑤들이 마지막몸부림으로 도전해나온다면 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은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없이 보다 더 확실하고 보다 더 치열한 징벌의 선제타격, 련속타격전을 개시할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천금같은 기회는 우리가 먼저 선택할것이다. 무자비하고 한계가 없는 복수의 불벼락으로 정의와 정화의 원쑤, 추악한 역적무리들을 남조선전지역에서 말끔히 청산해버리고 민족의 력사적숙원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전승의 열병식장에서 우리의 장거리포들은 조국통일의 축포를 쏠것이며 력사는 미국의 북침전쟁총견들이 백두산대국의 경고를 가볍게 대한 무지와 경솔함때문에 쑥대밭이 된 청와대의 폐허밑에 묻혔다고 자기의 페지에 똑똑히 기록하게 될것이다.

리 효 진

애국을 교살하는 매국의 폭거

전쟁화약내로 뒤덮인 남조선에 살벌한 파쑈광풍까지 불아치고있다. 최근 괴뢰보수패당이 지난해 3월 북침전쟁연습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에게 정의의 징벌을 안긴 주민 김기종을 또다시 공판장에 끌어내여 중형을 들씌우려고 악랄부랑하고있는것이다. 이번까지 세번째로 되는 공판놀음을 벌려놓은 괴뢰들은 미국대사징벌사건을 《총동으로 인한 사건으로 치부해선 안된다.》고 고아대면서 인민들의 반미투쟁과 전쟁연습중지요구를 반영한 그의 의로운 행동을 《리적동조죄》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할 기도를 드러내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에 대한 부정의의 악랄한 도전이며 애국에 대한 매국의 무지막지한 파쑈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 살고싶어하는것은 인류의 념원이며 북침전쟁연습으로 인한 참혹한 재난과 고통을 매일, 매 시각 강요당하는 남조선인민들이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미국대사징벌사건 역시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북침전쟁전초기지로, 핵화약고로 전변시키고 반세기가 넘도록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강요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로서 지극히 의로운것이다.

하지만 민족적자존심과 존엄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박근혜역적무리들은 미국대사가 입원한 병원의 문들쩌귀에 붙이 일 정도로 수치스러운 《문병》놀음을 벌려놓아 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냈다. 당시 박근혜역도는 미국대사의 발바닥이라도 핥을듯이 《정말 놀랐다.》느니 뭐니 하고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낯뜨거운 아양을 떨면서 상전의 《복수》를 위해 사나운 독이말을 갈았다. 괴뢰보수패당은 사건을 다짜고짜 그 무슨 《종북세력에 의한 테로사건》으로, 미국대사를 징벌한 주민을 《북의 지령을 받는 종북세력》으로 몰아대면서 《싸맞추기식수사》놀음을 벌려놓고 탄압의 구실을 찾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날뛰였다.

그러나 괴뢰들의 서툰짜리 모략의 내막은 첫 공판에서부터 드러났다. 사건이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불아오는 미국의 책동에 분노한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것이였다는것이 여지없이 밝혀졌던것이다.

하지만 미국대사징벌사건을 걸고 상전에게 더욱 아부아첨하며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을 《종북, 테로세력》으로 몰아 탄압말살하려고 피한 괴뢰보수패당은 김기종에 대한 공판놀음을 계속 벌리면서 그를 어떻게 하나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처형하려고 지랄발광하고있다. 박근혜역적패당이 정의로운 남조선주민에게 반미분자, 《테로》분자의 감투를 씌워 중형을 들씌우려는것이야말로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겠다는 해괴한 추태이다. 이 얼마나 경악스러운 사태인가.

김기종에 대한 사대매국적이며 파쑈적인 공판놀음은 미국의 더러운 주구로서의 박근혜패당의 삼삼개기질과 인민들에게는 잔인하고 조폭하기 그지없는 파쑈폭군인 청와대악녀의 추악한 본색을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미국대사징벌사건과 관련한 괴뢰들의 공판놀음은 완전히 거꾸로 된 재판이다. 민족의 심판대에 올라 단호한 징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다름아닌 미국의 사타구니에 붙어 핵전쟁위협을 몰아오는 친미사대무리인 박근혜역적패당이다.

지금 괴뢰들은 미국의 숱한 핵전쟁살인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도발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사상 최대규모로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악의 위기사태까지 몰아왔다.

이런 극악한 매국역적, 리성잃은 호전광들부터 심판대에 세우고 무자비하게 처형해야 평화도 오고 민족의 안전도 보장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력사는 부정의가 정의를 이긴 례를 알지 못한다. 괴뢰패당이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기운을 가로막아보려고 발광하면 할수록 저들의 파멸을 앞당기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박 철 준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전쟁연습 중단!》

남조선 각계의 투쟁

남조선인민들은 천하무도한 도발망동으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계선에로 몰아가는 호전광들에 대한 격분을 터치며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의 거리와 마을, 미국대사관과 괴뢰정부청사, 핵전쟁연습마당 등 도처에서 《이러다 전쟁난다.》, 《핵전쟁위기를 부르는 위험한 전쟁연습 중단하라.》, 《전쟁반대, 박근혜〈정권〉퇴진하라.》는 함성이 터져나오고있다.

《평화와 통일을 어는 사람들》은 서울의 광화문일대에서 《키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폭로하는 전집물을 방영하고 사람들에게 인쇄물을 나누어주며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반전평화련대 준비위원회, 로동자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일대에서 집회를 가지고 북에 대한 선제공격, 《지도부타격》을 전면화한 《작전계획 5015》에 따른 실전훈련을 벌리면서 《참수》를 로골화하는것은 매우 극단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망동이라고 규탄하였다.

진보련대, 서울평화실천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로항에서 집회를 가지고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진이래 가장 최대규모로 진행되고있는 이번 훈련에 《대북선제공격》의 완결판이라고 할수 있는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되였다, 이는 명백한 미국의 《북붕괴전략》이라고 질규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안산본부, 경기진보련대를 비롯한 경기도지역의 각계층 단체들은 안산과 수원 등지에서 항의운동들을 벌리면서 호전광들이 《족집게식정밀타격》, 《평양진격》, 《참수작전》을 떠들며 감행하는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전라북도의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청앞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경상남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쟁반대 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전쟁반대투쟁에 떨쳐나섰다.

대구, 인천, 대전, 부산, 전라남도 목포, 광양, 전라북도 김제 등지에서 각계층 인민들은 일제히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알리는 선전활동과 항의시위들을 전개하였다.

반전평화운동단체 성원들은 괴뢰해군작전사령부기지, 진해해군기지앞 그리고 평택미군기지와 경기도 성남의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 지휘통제소와 같이 미제침략군이 도사리고있는 기지들주변에서 항의집회와 시위를 벌렸으며 미국대사관앞에서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미군철수!》, 《전쟁연습 중단!》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미국기발을 불태웠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산하 청년학생본부는 미국대사관주변을 비롯한 서울의 여러곳에서 각각 기자회견들을 가지고 전쟁으로 인한 겨레의 고통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것을 각계층에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매향리의 참변은 과거사가 아니다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군사훈련 중단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양키는 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단죄규탄하여 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힘찬 웨침이다.

북침전쟁광신자들의 무분별한 불장난소동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시시각각 생명을 위협당하고있다. 얼마전에도 경기도 포천의 미제침략군사격장주변에서 사는 인민들이 전쟁연습책동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친미사대와 동족대결광기에 사로잡힌 남조선괴뢰패당은 우리 민족에게 온갖 재난과 고통만을 들씌우는 미국과 작당하여 그 무슨 《동맹》이니, 《의지》니 하며 전쟁연습책동에 계속 미쳐돌아가고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해마다 뻔질나게 벌려놓은 북침전쟁연습책동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은 실로 헤아릴수 없다. 미제침략군의 야만적인 전쟁연습으로 매향리주민들이 당한 참변이 바로 그에 대한 뚜렷한 립증이다.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2000년 5월 어느날 미제침략군은 경기도에 있는 매향리사격장에 실전용폭탄 6개를 마구 투하하여 주변마을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였다.

그날 미공군소속 전투폭격기에서 떨어진 대형폭탄들의 요란한 폭음에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다가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수백채의 농가들이 파손되였다.

이 폭격만행이 있기 전까지 매향리에서는 미공군의 기총사격과 폭탄투하훈련에 의해 주민 13명이 죽고 2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전쟁연습으로 인한 환경파괴로 이 지역 사람들속에서 불임증환자들이 늘어나고 기형아들이 출생하는 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한다. 미제침략자들은 경기도 매향리일대의 지상과 해상에 719만평에 달하는 사격장을 만들어놓고 《매향리사격장이 아시아지역의 공군사격장으로서 최적지》라고 떠벌이며 이곳에서 매주 60시간씩 기총사격과 폭탄투하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렸다. 지어 방사능피해가 큰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도 그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렬화우라니움탄까지 마구 사용하였다.

사람의 탈을 쓴 이런 전쟁광신자, 인간도살자들에 의해 매향리는 황폐화되고 이곳 앞바다의 큰 바위섬은 15m나 낮아져 형체도 가려볼수 없게 되였다.

더욱 격분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인 미제침략군측이 《실수》라느니, 《공무집행》이라느니 하면서 피해보상책임을 한사코 회피하고 그것을 괴뢰당국에 넘겨씌운것이다. 그리고 매향리사격장폐쇄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자 괴뢰당국에 다른 사격장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제침략자들이 그런 몹시괴치는 만행을 감행하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뻔뻔스럽게 놀이였으니 남조선인민들이 북침전쟁연습으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예로부터 봄이면 대화꽃향기가 짙게 풍기는 아름다운 고장이라고 하여 매향리라 불리운 곳이 불안과 공포만이 배회하는 사람 못살 불모지로 변했으니 미제침략군의 이 죄악을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하다면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는 미제야수들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매향리사람들뿐이란 말인가.

나물캐는 소녀를 《펑》이라고 쏘아죽인 군산소녀총격사건과 송유관부근에서 놀고있던 3살난 어린이를 《위탁유도적》으로 몰아 죄죽인 인천송유관어린이사살사건, 구두닦이고아소년을 나무상자에 처넣고 직승기로 실어 내던진 부평소년직승기궤짝사건, 나무하는 농민을 《노루》라고 하면서 쏘죽인 파주나무군사살사건, 《M—16》소총성능시험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명의 주민들을 파넉으로 세워놓고 조준사격하여 학살한 총기란사사건 등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저지른 치떨리는 살인만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역적패당은 미제침략군의 이런 극악무도한 만행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상전과 야합하여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책동에 계속 미쳐날뛰므로써 인민들의 고통을 날로 증대시키고있다. 박근혜패당이 미국과 함께 감행하는 북침불장난소동이야말로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고 신성한 조국강토에 전쟁의 재난을 불아오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이다.

남조선에서 북침을 가상한 미국과 괴뢰들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 감행되는 한 인민들이 당하는 재난은 끊임없이 이어질것이다.

현실은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이 도사리고있고 동족대결에 미쳐 온 남녘땅을 침략군의 핵전쟁연습장으로 만들며 상전과 함께 불장난소동에 광분하는 괴뢰역적패당이 살판치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외세와 매국노들이 강요하는 고통을 가시자면 뭐니뭐니해도 북침전쟁연습으로 화만 불아오는 미제침략군과 괴뢰역적패당을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

장 임 향

외세와 야합한 동족대결소동을 규탄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박근혜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을 규탄하여 3월 31일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한〉반도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라는 대형현수막과 《평화를 지키자!》, 《제재대신 대화!》, 《전쟁말고 평화!》라는 손구호판들을 들고 외세와 야합한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대해 성토하였다.

단체는 평화선언을 통해 미국, 일본, 남조선의 집권자들이 《대북제재》를 노린 모의를 벌리게 되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조선반도정세를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는 망동이라고 단죄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길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괴뢰호전광들 북침기동타격훈련에 광분

남조선 《련합뉴스》, 《MBC》방송에 의하면 괴뢰특군과 해군이 4일 남조선강원도 고성일대에서 대규모 북침기동타격훈련을 감행하였다.

괴뢰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침투라는 정황을 가상하여 해상에 대고 포탄을 무더기로 쏘아대며 전쟁연습놀음에 열을 올리였다.

역적패당은 이번 연습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정부》청사 등을 겨냥한 북의 대규모사격훈련에 대한 맞대응이였다고 보도하게 하였다. 이것은 괴뢰호전광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호령과 보복타격전에 얼마나 혼비백산하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선중앙통신】

원유의 나라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원유의 나라로 알려져있다.

쿠웨이트라는 나라이름은 아랍말로 《작은 성》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이 나라는 령토의 대부분이 해발 10m안팎의 사막지대와 바다가지대의 낮은 벌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자연지리적특성으로 하여 쿠웨이트에서의 원유채취는 그 생산성이 높고 원가가 낮은것이 특징이다.

이 나라에는 1000여개의 유정들이 있다. 그중 500여개의 유정들에서는 원유가 자연분출되고있다. 최근년간 쿠웨이트에서는 주변바다밑에서 원유가 발견되여 여기서도 원유를 채취하고있다. 세계적인 원유생산국으로서 2020년에 가서 하루평균 400만㎥의 원유를 생산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새로운 유전개발을 다그치고있다. 탐사된 천연가스매장량은 1조 1400억㎥이다.

이 나라에서 원유수출은 국가수입의 약 90%를 차지한다.

공업에서도 원유가공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원유정제공장들에서는 여러가지 원유제품들이 생산되여 국내수요를 충족시킬뿐아니라 수출도 많이 하고있다.

쿠웨이트에는 원유가 생처럼 솟아오르는 반면에 한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먹는 물이 부족한것이다.

지하수가 있기는 하나 대단히 깊은 곳에 있고 그것마저도 소금기가 있기때문에 먹는물로 쓰지 못한다.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원유보다 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 바다물정제공장을 크게 건설하여 생활용수뿐아니라 공업용수도 해결하고있다.

무역은 주로 해상운수를 통하여 진행된다.

수도 쿠웨이트는 페르샤만기슭의 주요항구도시이다.

중계무역항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쿠웨이트항은 국내에서 원유가 발견된 후 원유무역항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이 항을 통해 수많은 원유와 그 가공제품들이 수출되고있으며 밀가루를 비롯한 식량과 각종 기계들이 국내에로 들어오고있다.

오늘 쿠웨이트인민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 사회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올해 4월 4일은 우리 나라와 쿠웨이트사이의 외교관계설정 15돐이 되는 날이다.

림 원

세계보건의 날

건강하여 오래 사는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품고있는 소망중의 하나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은 개별적나라들에서는 물론 국제적규모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후 유엔이 창립되면서 보건과 관계되는 국제기구를 내올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론의되였다.

1948년 4월 7일에는 정식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창설되였다. 그후 이날은 세계보건의 날로 정해졌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도록 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보건분야에서의 변혁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세계적범위에서 벌려나가고있다.

해마다 세계보건의 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보건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여 사회적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제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여러가지 난문제들이 존재하고있다.

현대의학의 한계로 하여 난치의 병들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고있으며 불결한 위생조건과 환경오염, 의료봉사부족 등 현실적인 애로들이 적지 않다.

콜레라, 뎅구열, 에이즈를 비롯한 전염병들이 세계 각지를 휩쓸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있다.

최근년간에는 조류독감, 에볼라비루스감염증, 지카비루스감염증과 같은 전염병들이 급속히 퍼져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인간의 생명활동에 도전해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에서 보건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구현되고 무상치료제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사업을 중대사로 내세우고 여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우리 나라는 1973년 5월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였다. 우리 나라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본사기자

날로 더욱 심각해지는 사회적위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범 죄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취몬드시에서 3월 31일 총격류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날 시에 있는 한 버스정류소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나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본 효고현의 아시야시에서 3월 12일 15살 난 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여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살인자는 어머니의 목에 칼을 박아 무참히 죽였다고 한다.

도이췰란드에서 절도행위가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3월 30일 경찰당국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살림집들에 쳐들어가 절도행위를 감행한 범죄건수가 그 전해에 비해 9.9% 증대되여 16만 7 136건에 달하였다 한다.

실업문제

미국의 원유독점체인 아나다코 페트롤리움회사가 최근 경영형편악화를 구실로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1 000명의 종업원들이 해고당하게 된다.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지난해 4.4분기에 실업률이 10.3%에 달하였다.

프랑스에서 2월말현재 전국적인 실업자수가 359만 1 000명에 달하였다. 3월 24일 이 나라 로동성이 밝혔다.

경제침체

일본에서 제작업체들의 경영형편이 악화되고있다.

1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3월에 대규모제작업체들에서의 경영형편을 나타내는 지수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6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원유가격의 파동으로 지난해 경제가 그 전해에 비해 9.4% 감퇴되였다. 최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밝혔다.

심각한 채무위기

일본에서 지속되는 불경기로 채무위기가 격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200%계선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전하면서 교도통신은 지금 일본의 재정형편이 주요공업국가들중에서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평하였다.

그리스에서는 지난해 4.4분기에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135%에 달하였다.

프랑스에서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전염병피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라싸열병이 퍼져 인명피해를 입고있다.

1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나이제리아, 베닌, 토고, 시에라레온 등 나라들에서 300여명의 라싸열병환자가 등록되고 그중 16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리베리아에서 최근 에볼라비루스가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1일 정부는 몬로비아에서 30살 난 녀성이 이 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미친소병이 발생하였다. 3월 24일 이 나라 농업성은 아르덴느현에서 미친소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였다고 밝혔다. 이 나라에서 미친소병이 발생하기는 2004년 4월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사 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서북부지역에서 3월 24일 유조렬차와 화물자동차가 충돌하여 화재가 났다. 사고로 2명이 부상당하고 약 230명이 긴급대피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같은 날 프랑스의 알리에현에서 소형뻐스가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아 12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보다 앞서 21일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도 교통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났다.

【조선중앙통신】

ㄱ-61055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